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2014

2014. 10. 12-14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강원/평창 선언문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 책임을 자임하는 우리 지방정부 대표들은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2014년 10월 12일 부터 14일 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2)와 함께 개최된 「2014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모여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복지의 주요 열쇠이며, 인류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는 생물다양성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하는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가 인류 복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제안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거주 환경 구축,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그리고 15: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막화 방지, 그리고 토양오염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을 통한 지상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장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방정부가 실천하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인정한다.**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보고서와 차세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s)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당사국의 수를 점증시킴으로써 보여 준 선도적 리더십과 이를 통해 이뤄온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이행계획(2011~2012)’의 채택을 위한 촉매 역할을 비롯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에 있어서 도시와 지방정부에 관한 획기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의 결정을 **인정한다.**

실천을 위한 본 선언,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아이치/나고야 선언,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하이데라바드 선언 등 이번 선언의 근간이 되는 전차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선언들을 **인정한다.**

‘도시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도전과 기회’의 출판, 인천에서 개최된 제 4차 도시 생물다양성과 디자인에 관한 국제학술회의(URBIO), 그리고 URBIO의 도시연구의제 제안 등을 통해 제공된 과학적 기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변화 대응에 도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지방정부 낭트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난 하이데라바드 COP11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을 위한 프랑스 지방/지역정부연합 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실현하는데 지금까지 보다 더 지방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다음의 우선 분야에 대하여 동의한다.

아이치목표 1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통해 행동변화를 통해 도시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통, 교육 및 대중인식(CEPA) 증진 활동의 확대;**

아이치목표 17, 18, 19, 20과 관련하여, 지역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 계획 및 관리와 역량 강화 및 교육의 강화;

아이치목표 3, 4 지원과 관련하여, 약탈적이지 않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환경적 사회적 비용 내재화 정책을 개발하고, 생물다양성의 토지이용계획 반영과 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생태발자국 지수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과 도시의 생태계 복원을 지원함으로써 소모적인 소비유형 및 자연자원 이용을 단절한 삶의 질과 지역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

아이치 목표 5, 6, 7, 8, 9, 10, 11, 12, 13, 14, 15와 관련하여, 하천유역, 해양 및 연안자원, 토양 등 자연 자산에 대하여 모든 층위의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통합적 관리와 복원;**

아이치 목표 17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 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BSAPs) 개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NBSAPs)과 연계한 기존 계획의 수정 및 보강;**

아이치 목표 19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정책 연계를 강화하며, 연구자와 실무자 간 대화포럼을 지속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강력한 과학적 기반의 마련** (예를 들면, 도시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와 디자인에 관한 글로벌 연구 의제)

아이치 목표 20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이행을 위한 **재정 자원 확충과 접근;**

모든 아이치 목표, 특히 Goal E, “대중 참여 계획, 지식관리 그리고 역량강화를 통한 이행 강화”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글로벌 파트너십과 자문위원회,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지원과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 (LAB), 도시 생물권 이니셔티브(URBIS), 아프리카를 위한 도시자연자산 (UNA Africa), 도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URBE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nrg4Sd), 지중해 도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MediverCities), 지역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유럽학습네트워크, 도시 생물다양성과 설계(URBIO),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계획 (MAB) 도시 그룹, 국제해양혁신영토 국제네트워크(Mitin) 등 대륙단위와 지구적 단위에서 지방정부가 펼치고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의 중요성;**

미래의 구체적 실천행동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다음의 노력을 지속하고 또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아이치목표와 확실하게 연계된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인류의 안녕, 사회발전, 주거, 교통, 그리고 다른 전략들과 통합함으로써 생태적인 기반시설들을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수용하여야 한다.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여야 하고, 정책결정과 이행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상회의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참여하는 포럼으로 공식 제도화하여야 한다.

향후 도시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CBO)의 지속적 출판, 도시생물다양성에 관한 싱가포르 지표의 이행,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에 관한 정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Guideline) 마련, CBD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도구 등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혁신적인 재정운영제도 및 보조금 지원제도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다음의 사항을 장려하기를 요청한다.

Habitat III와 같은 포럼과 협약 사무총장들과의 회의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다자간환경협약 및 관련기관들과 협력.

향후 다른 다자간환경협약,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결정 과정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전략계획 (2011~2020) 채택에 적용 했던 것과 같은 접근법.

SDGs 초안 중 11과 세부목표 11.7항.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녹색 공공장소로의 보편적 접근”, 그리고 SDGs 14, 15조가 최종 결의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치 생물다양성 계획과의 긴밀한 연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활동계획에 도시와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와 수용.

우리는 세계지방정부 정상들이 참석한 ‘2014년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 준 강원도와 평창군에 감사를 표명한다. 아울러, 강원도 내,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보전된 DMZ (Demilitarized Zone)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백두대간은 매우 중요한 생태적 자산이며 전 인류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인식되고 보전되어야 한다.

2014. 10. 14